

# 교사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 의사 희망 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선희<sup>1</sup>, 허은정<sup>2\*</sup>

<sup>1</sup>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up>2</sup>서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Career Maturity of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eaching Job in Comparison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being a Doctor

Sunhee Paik<sup>1</sup>, Eun Jung Hur<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교직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자기 이해, 진로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을 의사직 희망 학생과 비교하여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자료를 분석, 교직 희망 학생과 의사직 희망 학생을 추출하고, 이들의 진로 특성을 비교하고 아울러 학년별 추이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 특성의 하위 영역인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교직 희망 학생은 의사직 희망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장래 희망 직업에 관계없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특성의 하위 영역의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고, 모든 학년에 걸쳐 의사 희망 학생에 비해 교직 희망 학생의 하위 영역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2학년에만 측정된 '일에 대한 태도' 점수는 의사 및 교직 희망 학생 모두 다른 하위 영역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바람직한 직업 가치에 기반하여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연구 결과에 바탕하여 바람직한 교직 희망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교사 희망 학생, 진로 특성, 진로 성숙도, 교직 희망 동기, 의사 희망 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areer maturity of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interested in teaching job and compared to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being a doctor.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we examined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primary 5 through middle 2) who were interested in teaching as a job as well as in being a doctor.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career maturity such as self-understanding, career planing, and attitudes towards job were examined and independent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two groups of students. Overall, the students who were interested in teaching showed lower level of career maturity compared to those who expected to be a doctor. Additionally, as students advanced to higher grades, the points of career maturity had been decreased regardless of which job they were interested in.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will be made to broaden the pool for future teachers.

**Key Words** : career maturity, teaching motivation, teaching as a job, career choice, future career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Hur(ejhur@seowon.ac.kr)

Received September 2, 2020

Revised October 7,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 1. 서론

교직은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다. 201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20개 중 1위는 선생님(교사)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고루 나타나고 있다[1].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교직 희망 동기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렇듯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교직이 갖고 있는 직업 안정성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교직의 인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기점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 명예 퇴직이라는 이름의 대량 해고 사태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이상 평생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었고,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는 교직의 매력 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2].

교직을 희망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교사가 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12년 기간의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이 접하는 직업은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주체는 부모님 다음으로 교사이다[1]. 물론 교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교사의 영향을 받아[3] 가장 친근한 직업인 교직을 희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듯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한 자기 이해와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교직을 희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초·중등학교 시기에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교직에 입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예비군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초·중등 학생들이 막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직에 대한 희망을 지속한다면 이들이 실제 교직에 입직했을 때의 실망감과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해 교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 5].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 보기 어렵다. 초등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임 초등교사의 직무만족도는 1년차 3.89, 2년차 3.88, 3년차 3.81로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있다[6]. 또한 교

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연구인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주기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이 TALIS 참여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7], 이러한 결과는 3주기 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 교사들의 낮은 교사 효능감과 교직 만족도는 예비교사, 그리고 그 이전 교사를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직은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이들이 관찰의 도제(apprentice of observation) 과정을 통해 익숙한 직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직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교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다시 말해 교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9]. 대부분의 초·중등학생과 심지어 교사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조차 교사를 주로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가 수업 이외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대상들과 상호작용 해야 하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4].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시간보다 노출되지 않는 시간이 상당하고, 노출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학생 외의 다양한 주체(예를 들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교육청의 관료 등)와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이러한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과 피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도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직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혹은 교직이 줄 수 있는 직업 안정성과 같은 외재적인 요인들에 의해[9] 교직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직을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진로 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즉,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진로 활동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들의 진로 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초·중학생 중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특성을 단일 진단할 경우 그들의 진로특성이 어느 정도로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직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진로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의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의사직이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종이며, 둘째, 교직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분명한 직업포부를 표현

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라는 점 때문이다[10].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은 의사직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직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의사 희망 학생과 어떻게 다른가?

## 2. 선행연구 분석

### 2.1 교직 희망 동기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 사이에서 교직이 희망 직업으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왜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지, 어떠한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몇몇 연구는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직 희망 동기를 진단하고 있으며 교직 희망 동기가 교직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한 동기, 그리고 교직에서 얻을 수 있는 외재적 특성에 의한 동기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교직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한 동기는 교직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또한 외재적 특성에 근거한다. 우선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직이 젊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다[8]. 우리나라에서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직 희망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학교와 가르침 선호, 수학이라는 학문 선호, 학생과 사회의 변화 추구하고 같은 교직만이 줄 수 있는 특성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학교육과 재학생인 이들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여준 것은 교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교직을 선택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4]. 또한, 교생실습을 마친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교생 실습과 같은 교육 활동 요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동기를 굳혔다[3]. 다시 말해, 교생 실습을 통해 교직이 가진 특성과 매력을 발견하고 이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호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범계열에 진학한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할 때 자신이 사회에 교사로서 기여할 수 있고, 타인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즐기며, 심

리적,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교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10]. 유사하게 홍콩에서도 사범계열 재학생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 역시 이타주의와 더불어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과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선호와 관심을 들고 있다[11].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Kass와 Miller(2018)가 사범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교사가 된 자들의 동기를 자신들의 과거 학교 경험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즉, 사범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힘들었던 자신들의 학교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따뜻함, 돌봄, 개인에 대한 집중, 부당하고 부끄러웠던 경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교직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교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동기를 형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Flores와 Day(2006)는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14명의 교사들 중 오직 2명만이 교직이 갖고 있는 내재적 특성에 의해 교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이 2명의 교사는 학교 현장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대한 열정과 낙관주의를 잃지 않고 있어 내재적 특성 이외의 이유로 교직을 택한 교사들과는 대비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3].

한편, 교직이 가진 내재적 특성 이외에 외재적 특성 역시 교직 희망 동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김이경, 한신일(2006)의 연구에서는 교직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동기를 교원자격의 이차적 혜택, 그리고 근무여건과 안정적 수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교직 희망 동기로 수학이라는 학문 선호에 가장 높은 평균점을 주었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점이 근무여건과 안정적 수입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 교직이 줄 수 있는 외재적 요인 또한 교직 희망 동기를 형성하는 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 또한, 안재희, 이숙정(2012)의 연구에서도 사범계열 혹은 교직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직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활동경험과 더불어 교육외적 요인, 즉 임용시험 경쟁률을 들고 있어, 교직의 본질적인 특성 외에도 교직을 선택함으로써 인해 자신이 교직이라는 지위를 습득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교직 희망 동기에 교직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인 이유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호주의 사범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이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회적 지위, 재정적 보상, 가족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이 나타났고[10], 호주, 독일, 미국, 노르웨이의 사범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도 국가별로 양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직업적 안정성, 가족을 위한 시간 여유와 같은 교직이 줄 수 있는 외재적 요인들이 교직 희망 동기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 2.2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특성

앞서의 교직 희망 동기는 교직 희망 학생의 특성, 즉 진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 특성을 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 진단하고 있다. 자기이해는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장단점과 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진로계획성은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을 어떤 수단으로 보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대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15].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교직을 희망하거나 혹은 교원양성기관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특성 혹은 진로 관련 특성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이미 대학에 진학하여 사범대에 재학 중이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이전 단계로 초·중등학교 학생 중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을 진단한 연구도 있다. 김정숙(2006)은 의사직과 교사직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포부 결정요인을 진단하였다. 의사직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자녀직업에 대한 포부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배경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직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교직을 희망할 확률이 높고, 의사직과 같이 부모의 자녀직업에 대한 포부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와 관련해서는 의사직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경우 외적보상은 정적 영향을 여가안정 보상은 부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교직의 경우 외적 보상은 부적 영향을, 여가안정 보상과 내적 보상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의사직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과 같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여가 시간과 같은 부분은 중시하지 않는 반면 교직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경제적 보상과 같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 반면 여

가와 안정성 그리고 교직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교직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등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16]. 이와 같이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 즉 교직을 희망하는 동기는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변수용, 우한솔, 김지혜(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 변화와 이들의 특성 변화를 진단하였다. 2006년, 2009년, 2012년의 세 시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2006년과 2012년의 교사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만족도는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았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사를 희망할 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직업이 교사일 경우에 교사를 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에는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를 부모로 둔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할 확률은 높았으나 학업성취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다소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변수용 외(2019)의 연구는 Gore et al.(2016)이 호주를 배경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하는 데 있어 성별 이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자본,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5]과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학생 특성과 가정의 배경이 진로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예: [17]) 교직을 희망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진로 특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들과 더불어 그 이전의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직을 희망하는 데에 따른 다양한 진로 특성과 영향 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직을 희망하는 초·중등학생의 경우 200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특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교직에 입직하는 자들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낮아지고 있고[8], 교직이 줄 수 있는 외적 요인들(여가와 안정성 등)이 초·중등 학생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직을 희망하는 초·중등학생

과 중등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같은 자기 이해, 교직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같은 진로계획성, 그리고 바람직한 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교직을 희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직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초·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특성을 진단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직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교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로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 자료 중 2013~2016년, 4개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1차 조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서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통해 표본 학생 8,070명을 추출하였고, 실제 7,324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조사 대상 학생으로 무선 추출되었다. 해당 조사는 추출된 학생과 표본 학생의 학부모,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중 1차 조사인 초등학교 5학년(2013년)부터 4차 조사인 중학교 2학년(2016년)까지 4년간의 학생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학생 자료에는 장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장래 희망에 대한 학생 응답 중 모름, 희망 직업 없음, 응답 오류 등을 제하면 1차년도(초5) 6,379명, 2차년도(초6) 6,592명, 3차년도(중1) 5,763명이 장래 희망에 대해 구체적인 직업을 기술하였고, 연구자는 이 중 ‘교직 희망’과 ‘의사직 희망’을 재분류하여 1차년도(초5) 1,175명, 2차년도(초6) 1,222명, 3차년도(중1) 1,087명, 4차년도(중2) 1,095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2 연구 도구 및 분석 방법

##### 3.2.1 연구 도구

우선 희망 직업을 추출하기 위해 장래 희망에 대한 문항,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까?”의 주관식 답변을 ‘교사 희망’, ‘의사 희망’, ‘교사의사 이외의

직업 희망’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때 ‘교사 희망’은 교사 또는 선생님이라고 작성한 답변을 의미하며, 학교급을 병기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다른 직종과 중복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의사 희망’의 경우 의사라고 기술한 답변을 의미하며, 전공을 병기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 때 수의사, 한의사는 제외하였고 의사 이외의 직업과 중복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교사와 의사 희망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앞선 2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직종을 포함하였고, 직업을 나타내는 특정 단어가 아니더라도 서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서는 직업)이면 해당 범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분류 작업을 기반으로 ‘교사 희망’과 ‘의사 희망’에 해당하는 학생 자료를 희망 직업별 평균 비교 시 활용하였다.

두 번째 관심 변인은 ‘진로 특성’이며, 세 가지 하위 요소, ‘자기 이해’, ‘진로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15]. 즉,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 정도,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직업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진로 특성의 정의 및 진로 특성의 하위 영역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문항을 고려하여 ‘자기 이해’, ‘진로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세 가지 하위 영역의 문항들은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각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 중 ‘일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고, 중학교 1-2학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 자료에서 활용한 진로성숙도 하위 변인들의 신뢰도는 .59에서 .93 사이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Table 1. Items of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Scales	cronbach's α
Desired occupation	Teacher =1, Doctor= 2	-
Self-understanding	5 questions(e.g., knowing what I am good at)	.93
Career planning	5 questions(e.g., specifically thinking about what I have to do now to pursue future career)	.91
Attitudes towards job	5 questions(e.g., job itself is not meaningful in my life)	.59

##### 3.2.2 분석 방법

첫째, 2013년~2016년,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의 직업 희망 및 진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하는지, 의사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진로 특성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기초 분석

분석 대상이 되는 학생의 기본 특성은 초등학교 5학년 인 2013년, 그리고 중학교에 진급한 첫 해인 2015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응답 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 49.5%, 여학생 50.5%이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모두 소속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당시에는 중소도시(37.8%), 대도시(23.7%), 읍면지역(19.9%), 특별시(18.7%)의 순서로 분포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중소도시(37%), 대도시(24%), 특별시(17.8%), 읍면지역(17.2%)으로 소재지 비율이 소폭 변화를 보였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이 95%였고, 중학생은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80.5%를 차지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Backgrounds

Variables		2013		2015	
		N	%	N	%
Sex	Male	3,623	49.5	3,623	49.5
	Female	3,701	50.5	3,701	50.5
Location	Metropolitan city	1,368	18.7	1,217	17.8
	Big cities	1,730	23.7	1,641	24.0
	Medium cities	2,759	37.8	2,707	37.0
	Smal cities 1	1,451	19.9	1,261	17.2
School Type	Public	6,943	95.0	5,495	80.5
	Private	365	5.0	1,331	19.5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직업 희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희망 직업에 대해 모름·없음, 무응답, 응답 오류, 시스템 결측치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한 후 장래 희망 직업을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교사를 희망한 학생과 의사를 희망한 학생 수와 비율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장래 어떤 직업

을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한 응답자 6,379명 중 교사 희망 학생이 684명(10.1%), 의사 희망 학생이 491명(7.3%)이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6,592명 중 교사 희망 학생이 761명(11.5%), 의사 희망 학생이 461명(7.0%)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5,763명 중 교사 희망 학생이 791명(13.7%), 의사 희망 학생이 296명(5.1%), 중학교 2학년은 5,408명 중 교사 희망 학생이 818명(15.1%), 의사 희망 학생이 277명(5.1%)이었다. 교사 희망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비율이 상승하는 반면(10.1%→15.1%), 의사 희망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3%, 7.0%→5.1%).

Table 3.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desired jobs

Desired job	Primary 5th	Primary 6th	Middle 1st	Middle 2nd
Teacher	684 (10.1%)	761 (11.5%)	791 (13.7%)	818 (15.1%)
Doctor	491 (7.3%)	461 (7.0%)	296 (5.1%)	277 (5.1%)
Others	5,564 (82.6%)	5,370 (81.5%)	4,676 (10.8%)	4,313 (79.8%)
Sum	6,739 (100.0%)	6,592 (100.0%)	5,763 (100.0%)	5,408 (100.0%)

##### 4.2 교사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진로 특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포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직인 의사직 희망 학생과의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1.과 Table 4.2.와 같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진로 특성의 '자기 이해' 및 '진로 계획성' 측면에서 교사 희망 학생과 의사 희망 학생의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자기 이해'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4.11)이 의사 희망 학생(4.27)보다, '진로 계획성'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94)이 의사 희망 학생(4.09)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 = -3.643, -3.337$ ). 초등학교 6학년 역시 5학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자기 이해'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94)이 의사 희망 학생(4.09)보다, '진로 계획성'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95)이 의사 희망 학생(4.04)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 = -2.571, -2.053$ ).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교사 희망 학생과 의사 희망 학생 사이의 진로성숙도 차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자기 이해’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97)이 의사 희망 학생(4.11)보다, ‘진로 계획성’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85)이 의사 희망 학생(3.98)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2.688, -2.433$ ). 중학교 2학년에서는 ‘자기 이해’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98)이 의사 희망 학생(4.09)보다, ‘진로계획성’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81)이 의사 희망 학생(3.97)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2.331, -3.101$ ). 중학교 조사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일에 대한 태도’ 변인의 경우, 교사 희망 학생(3.51)이 의사 희망 학생(3.56)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Table 4.1. Comparison of Career Maturity: Primary

Classification		Primary 5 <sup>th</sup>				Primary 6 <sup>th</sup>			
		N	M	SD	t	N	M	SD	t
A	①	682	4.11	.741	-3.643***	759	4.08	.730	-2.571*
	②	488	4.27	.717		461	4.18	.668	
B	①	674	3.94	.749	-3.337**	759	3.95	.750	-2.053*
	②	488	4.09	.745		460	4.04	.749	

\* A=self-understanding, B=career planning,  
①=Teacher, ②=Doctor

\* p<.05, \*\* p<.01, \*\*\* p<.001

Table 4.2. Comparison of Career Maturity: Middle School

Classification		Middle School Grade 1				Middle School Grade 2			
		N	M	SD	t	N	M	SD	t
A	①	789	3.97	.700	-2.688**	815	3.98	.695	-2.331*
	②	296	4.11	.769		276	4.09	.673	
B	①	789	3.85	.727	-2.433*	812	3.81	.742	-3.101**
	②	296	3.98	.800		277	3.97	.744	
C	①	786	3.51	.414	-1.820	810	3.46	.416	-1.296
	②	293	3.56	.427		276	3.50	.439	

\* A=self-understanding, B=career planning,  
C=attitudes towards job / ①=Teacher, ②=Doctor

\* p<.05, \*\* p<.01, \*\*\* p<.001

### 4.3 교사 희망 학생 진로 특성 학년별 변화

교사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추이를 역시 의사 희망 학생과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Fig. 1~ Fig. 3.과 같다. ‘일에 대한 태도’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중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 희망 학생, 의사 희망

학생, 그리고 전체 학생에 관계없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 특성 점수는 대체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 측면에서는 교사 희망 학생과 의사 희망 학생 모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향세이나, 3년 내내 4점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 희망 학생의 ‘자기 이해’ 수준은 의사 희망 학생에 비해 3년 내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자기 이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는 교사 희망 학생의 점수가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중학교 2학년에 이르러서야 전체 응답자 평균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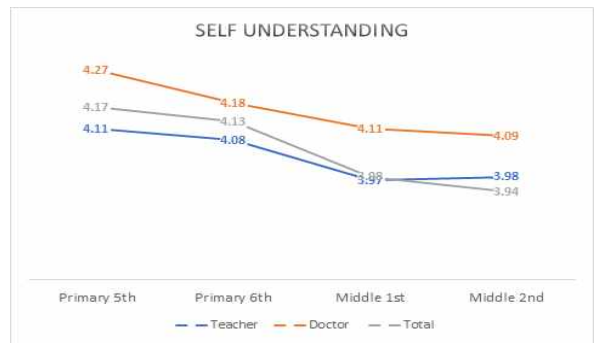


Fig. 1. Self-understanding trend according to desired job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제시된 ‘진로계획성’ 측면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Fig. 2. 참조). ‘진로계획’ 측면에서도 변화 양상은 교사 희망 학생에서 더 다양하게 드러난다. 의사 희망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4.09)에서 중 2학년(각 3.97)까지 완만하게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데 비해, 교사 희망 학생은 4년 간 진로계획 점수가 의사직 희망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긴 하나, 초5(3.94)에서 초6(3.95)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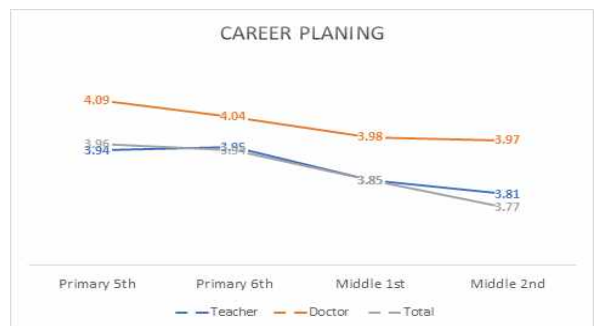


Fig. 2. Career planing trend according to desired job

중학교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일에 대한 태도’는 교사 희망 및 의사 희망 학생 모두 3.50 내외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자기 이해’와 ‘진로계획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Fig. 3. 참조). 이 역시 교사 희망 학생이 의사 희망 학생에 비해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의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특성에 따라 그 직업을 선호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 집단이 해당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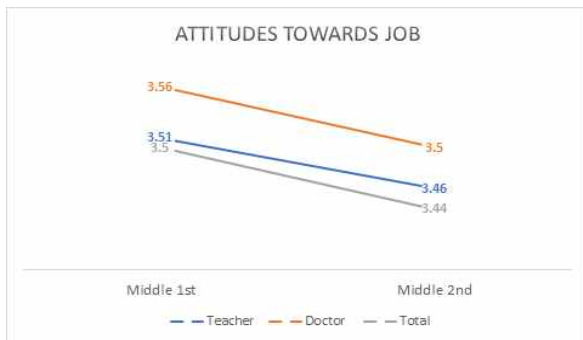


Fig. 3. Attitudes towards Job trend according to desired job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특성인 ‘자기 이해’, ‘진로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를 의사 희망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1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 우리나라 초·중학생에게 교직이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초·중학생이 희망할 수 있는 직업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단일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10이라는 점은 그만큼 교직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이 희망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 희망 학생의 진로 특성의 세 개 하위 영역 즉, ‘자

기 이해’ 및 ‘진로 계획성’,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모두 의사직 희망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있다. 의사 희망 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와 ‘진로 계획성’에 있어 모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직 희망 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자기 이해’는 4점에 다소 못 미치고, ‘진로 계획성’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4.0에 못 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교사 희망자의 진로 특성 점수가 의사 희망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직 희망 학생의 ‘자기 이해’ 점수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시기에는 4.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중학교 1학년 시기에 3점 후반대로 조금 하락하고 있다. 다만, 중학교 2학년에 다시 3.98점으로 거의 4.0점에 가깝게 다소 상승하고 있어 이 시기에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의사직을 희망할 때 ‘자기 이해’ 점수는 교직 희망 학생보다 높은 4.09점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직 희망 학생의 경우 이전 시기(초5 ~ 중1)에 ‘자기 이해’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 희망 학생과의 경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직 희망 학생의 ‘진로 계획성’ 점수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3.94점이었던데 비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3.81점이었고, 조사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4.0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사직 희망 학생 역시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는 4.0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중학교 1-2학년에서는 4.0점에 다소 못 미치는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교직 희망 학생에 비해서는 전 학년에 걸쳐 높은 ‘진로 계획성’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진로 계획성’이 장래희망을 위해 초·중학교 시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련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장래희망을 조금 더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인 중학교 2학년 때 도리어 ‘진로 계획성’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진로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교직 희망 학생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는 중학교 1학년 3.51점, 중학교 2학년 3.46점으로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수는 의사직 희망 학생들의 점수(중학교 1학년 3.56, 2학년 3.50)와 비교해서



는 다소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고, 전체 학생들과는 거의 유사한 점수(중학교 1학년 3.50, 2학년 3.44)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을 희망하는 중학생이 평균 정도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직 희망 학생들이 교직을 왜 희망하는 지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업의 외재적인 특성(예: 돈, 여가 등)에 의해 직업을 희망할 때 직업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6], 직업포부가 거의 결정되는 중학교 2학년 때[18]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일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직의 장점 중 하나는 입직 후부터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종사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입직 시점에 따라 재직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오랜 기간 종사해야 할 직업이라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여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교직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접하기 쉬운 직업이라는 점에서[9] 선택하기 용이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직 교사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비율이 20%를 상회한다는 점을[4] 고려할 때, 교사를 직업으로 택할 때 더욱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풀(pool)에 조금 더 바람직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접하기 쉽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학교급에서 강조되고 있는 진로교육에서부터 교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포부가 안정권에 접어들고[18] 진로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중학교 시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신중하게 탐색하며, 적절한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일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관 정립에 대한 교육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동일 학생을 추적하는 종단분석 방식이 적절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집단 간 차이 및 연도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자료 보완을 통한 종단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 Jang, S. Min, M. Kim, J. Ryi, & J. Kim. (2017). *Career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2017)*.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2] H. Lee(2014). Moderating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ping the teacher profession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2), 1-23. DOI : 10.14333/KJTE.2014.30.2.1
- [3] J. Ahn & S. Lee. (2012). Analysis of career choices made by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 27-49.
- [4] E. Kim & S. Han. (2006). Choosing mathematics teaching as a career: An analysis of prospective teachers' reasons to becom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3(2), 51-73.
- [5] S. Byun., J. Kim, & H. Woo. (2019).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who want to be a teacher: Focusing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1), 27-51. DOI : 10.32465/ksocio.2019.29.1.002
- [6] H. Chu. (2012). A longitudinal analysis of new teacher's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8(3), 265-281.
- [7] J. Hur, S. Choi, E. Kim, K. Kim, Y. Kim, & S. Kim. (2015).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eachers, principals, and teaching and learning: Results from TALIS 2013*.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8] D. Lee, J. Jur, Y. Park, H. Kim, S. Lee, E. H. Ham, & S. Ham. (2019).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eachers, principals, and teaching and learning: Results from TALIS 2018*.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9] D. C. Lortie. (2002). *Schoolteacher: A sociological stud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0] Y. Lee, S. Han, J. Chung, & K. Kim(2008). *Work values and vocational ethics of Korean: Work ethics and professionalism of professionals*.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10] P. W. Richardson & H. M. Watt. (2005). 'I've decided to become a teacher': Influences on career chang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1(5), 475-489.
- [11] A. K. Wong, S. Y. Tang, & M. M. Cheng. (2014). Teaching motivations in Hong Kong: Who will choose teaching as a fallback career in a stringent job marke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41, 81-91.
- [12] E. Kass & E. C. Miller. (2018). Career choice among academically excellent students: Choosing teaching career as a corrective experien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73, 90-98.

- [13] M. A. Flores, & C. Day. (2006). Contexts which shape and reshape new teachers' identities: A multi-perspective stud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2), 219-232.
- [14] H. M. Watt, P. W. Richardson, U. Klusmann, M. Kunter, B. Beyer, U. Trautwein, & J. Baumert. (2012). Motivations for choosing teaching as a career: An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the FIT-Choice scal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8(6), 791-805.
- [15] J. Namgung, H. Kim, K. Park, S. Song, Y. Kim, M. Jung, & Y. Choi. (2018). *2018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13: Educational experiences and growth*.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6] J. Kim (2006).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aspir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medical and teaching profession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6, 125-148.
- [17] S. Paik & W. Shim (2017). Vocationa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in comparison to those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2), 315-338.
- [18] J. Ryu, J. Kim, & M. Hwang. (2004). The study on the change of the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spir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2), 315-333.

백 선 희(Sunhee Paik)

[정회원]



- 2011년 8월 : Michigan State Univ. (교육과정 박사)
- 2011년 9월 ~ 2013년 8월 : 싱가포르 NIE 박사후 연구원
- 2014년 3월 ~ 2016년 8월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2016년 8월 ~ 현재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교사교육, 교육정책
- E-Mail : spaik@ginue.ac.kr

허 은 정(Eun Jung Hur)

[정회원]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2월 ~ 2019년 2월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2019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원양성, 교사학습, 학습공동체 등

동체 등

- E-Mail : ejhur@seowon.ac.kr